

# “해항도시의문화교섭학” 기획 콜로키움을 통해 본 새로운 해양인문학의 전망

이송이\*

## 《목차》

- I. 서론
- II. 기획 콜로키움 “해항도시문화 교섭학의 가능성” 검토 - 성과와 과제
- III. 국내외 콜로키움 사례 검토 - 비교와 전망
- IV. 결 론

## I. 서론

“인문학의 위기”라는 표현은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하여 현재는 식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한 때 학계에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인문학의 위기는 실제 1995년 교육부가 도입한 대학의 학부제 시작과 1997년 IMF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와 맞물려 일어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sup>1)</sup>

서양에서 일어난 인문학의 최초의 위기는 19세기 과학의 발달로 인한 실증주의적 사고가 학계에 주도적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2)</sup> 이러한 과학의 주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인문한국(HK)연구교수

1) 이선관, “인문학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인문과학연구 江原人文論叢 第18輯,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12, 206~207면.

2) 이선관, 위의 논문, 211면.

도는 “인문과학”이란 용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인문학이 자연과학과 동등한 위치를 얻기 위해 만들어졌던 이 용어는 2차 대전 이후부터 인문학의 변별성을 강조하려는 학계의 분위기에 따라 사라진다. 이때부터 인문학은 과학이 다룰 수 없는 영역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sup>3)</sup> 한편, 후기 자본주의 시대와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문학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현대 서양을 지배하는 새로운 사회적인 구조와 지배적인 문화적 분위기로 인해, 전통적인 인문학이 추구했던 절대적이며 초월적인 진리와 주체의 가치는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인문학의 위기”를 단순히 한국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진적이고 자생적인 현대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으며, 따라서 학계의 토대가 불안정한 우리나라가 겪는 “위기”는 서양 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에 대한 많은 대안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쏟아져 나왔지만 큰 해결책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을 통해 이뤄낸 성과가 있다면, 이전에는 비교적 낯설게 여겨졌던 “학제간 연구”라는 학문적 방법론이 인문학계에서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이다. 학제간 연구에 대해 학문적 깊이의 결여나 상호 학문 분야에 대한 오해와 같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학제간 연구는 다양한 관점의 공유를 통해 오히려 현대에 “위기”에 처한 인문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새로운 대안 중 하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제해양문제연구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문한국 연구사업 역시, 21세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본질과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인문학의 과제에 대한 소박한 대응책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사회과학, 공학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주제를 심층적이며 다각도로 조명하는 작업은 바로 학제간 연구의 모범적 일례로 보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 방식은 기존의 관점에 대한 비판과 기존의 단일 연구 분야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를 가진다. 이처럼,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의 현 연구사업은 해양을 그 중심에 둬으로써 모든 인문학이 갖고 있는 맹점이라 할 수 있는 대륙 중심의 관점에서

3) 이성훈, “인문학의 위기와 문화연구”, 인문학논총 인문과학논총 제7집,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2, 109면.

벗어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의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던 기획 콜로키움을 중심으로 학제간 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지향되어야 할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 기획 콜로키움 1부의 내용, 성과, 문제점 등을 국내 연구소와 서양 연구소(프랑스를 중심으로)의 기획 콜로키움 사례와 비교 검토해보고자 한다.

## II. 기획 콜로키움 “해항도시문화교섭학의 가능성” 검토 -성과와 과제

### 1. 기획 취지 및 목적

국제해양문제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한국사업인 “해항도시의 문화교섭학”은 인류의 모든 문화교섭을 연구대상으로 새로운 문화 창조의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그러한 경험을 축적한 사회적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새로운 보편을 향한 학문을 추구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해항도시를 그 영역으로 잡고, 이 공간을 교류의 역사성, 초국가적 영역성, 이문화 혼교의 경험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탐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학문분야 간의 만남과 교류, 충돌과 이해의 방식,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넓은 안목과 복안을 요구하기에 분과학문적인 경계나누기를 지양하고 있다.

“해항도시의 문화교섭학” 콜로키움은 본 연구사업의 국내교류 활동 부분으로 기획되었다. 2009년 총 7회가 1부로 묶여져서 “해항도시문화교섭학의 가능성”이란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개최되었다.

첫째, 전문가를 통해 “해항도시의 문화교섭학” 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그 방법론을 성찰한다.

둘째, 아젠다 이해의 심화 및 학제적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다.

셋째, 국내외 연구자들 간의 연구 결과를 교환하며,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 2. 내용

콜로키움 1부는 인문학 제반 분야에서 전공 분야 연구원의 추천을 받아 “해항도시의 문화교섭학”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외부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특강 형식으로 개최하였으며, 외부에 공개, 일반 청중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관점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였다. 콜로키움은 영역별로 나누어 개최하였으며, 각 영역 연구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의 고찰과 이해의 심화를 도모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1부는 총 7회로 개최하였으며, 1회 당 약 2시간 30분을(발표 : 1시간-1시간 30분, 토론: 30분-1시간) 배정하여 진행하였다. 필요한 경우, 원활한 토론을 유도할 목적으로 동일 전공의 토론자 1인을 지정하여 진행하였다

포스터와 메일링 홍보를 통해 콜로키움에 대한 외부 연구인들의 관심과 참석을 유도하였으며, 차후 발표집과 녹취록집을 발간하여 일회성 학술행사로 끝나지 않는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려 하였다. 아래의 <표 1>은 총 7회로 구성된 콜로키움 1부의 발표자와 주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sup>4)</sup>

<표 1>

회	성명	소속	강연 제목	개최일
1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실크로드의 새로운 이해	05.29. 10:00
2	이규수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제국의 팽창과 변모하는 개항장 - 일본인 거류지 형성과 문화교섭	06.25. 15:00
3	문광훈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 - 7개의 테제	07.24. 15:00
4	민유기	광운대학교 교양학부	도시사연구와 해항도시 문화교섭학의 상호성과 전유 가능성	08.21. 15:00
5	양라이칭 (楊來靑)	청도당안국	해항도시 청도연구의 과제와 전망	09.25. 14:00
6	사사키 마모루 (佐々木衛)	고베대학교	세계화에 따른 중국 사회구조의 변용: 기층 구조 패러다임의 시점에서	10.23. 15:00
7	강진아	경북대학교 사학과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 해항도시와 광동 네트워크	11.12. 15:00

기획 콜로키움 1회에서 7회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5)</sup>

4) www.ima.ac.kr 참조

### 제1회 콜로키움

HK 해항도시의 문화교섭학 연구단은 2009년 5월 29일(금요일) 10시 한국해양대학교 종합관 세미나실(214호)에서 제 1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1회 콜로키움에서는 문명 교류연구소의 소장이신 정수일 교수께서 “실크로드의 새로운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셨다.

정수일 교수는 발표에서 기존의 실크로드의 개념을 심층적으로 확장하여, 변화 이동하는 과정인 문명 교류의 길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발표자는 연구단의 아젠다와 관련하여 “문화교섭학”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시각에 주목, 현대문명의 새로운 이해에 대한 방법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 제2회 콜로키움

HK 해항도시의 문화교섭학 연구단은 2009년 6월 25일(목요일) 3시 한국해양대학교 종합관 세미나실(214호)에서 제 2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2회 콜로키움에서는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에 계시는 이규수 연구교수께서 “제국의 팽창과 변모하는 개항장 - 일본인 거류지 형성과 문화교섭”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셨다.

이규수 교수는 발표에서, 일제 강점기 시기의 한국의 개항장을 통해 유입된 재조일본인에 주목하여, 한일 양국의 혼교, 충돌, 재편의 양상과 역사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개항장이 지닌 사회적 성격과 의의는 물론 식민지배 구조를 규명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더불어 발표자는 연구단의 아젠다와 관련하여, 해항도시를 매개로 한 민간인 중심의 재조일본인 연구가 해항도시를 단순한 침략과 수탈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공명공간의 장’으로 파악하게 하리라는 가능성을 피력하였다.

### 제3회 콜로키움

HK 해항도시의 문화교섭학 연구단은 2009년 7월 24일(금요일) 3시 한국해양대학교 종합관 세미나실(214호)에서 제 3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3회 콜로키움에서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문광훈 연구교수께서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 - 7개의 테

---

5) 위의 사이트 참조.

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문화의 개념을 푸코, 김우창의 관점과 이론으로 설명하고, 7개의 정의를 통하여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더불어 발표자는 현대사회에서 문화는 자기 반성적인 비판적 사유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표자는 본 연구단의 아젠다와 관련하여, 문화에서의 혼종과 교섭에 대한 고찰은 개방성, 유연성, 자율성, 타자성을 아우르는 보편성과 자율성을 반드시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제4회 콜로키움

HK 해항도시의 문화교섭학 연구단은 2009년 8월 21일(금요일) 3시 한국해양대학교 종합관 세미나실(214호)에서 제 4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광운대 민유기 교수께서 “도시사연구와 해항도시 문화교섭학의 상호성과 전유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21세기의 전 지구적인 변화에 부응하는 도시사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표적인 서양의 도시사 연구 이론과 국내외의 연구 성과물을 소개하였다. 또한 식민도시, 동아시아 고중세 근대 도시 및 지방 중소도시들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난 도시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발표자는 본 연구단의 아젠다와 관련하여, 근대 이후의 산물이자 이국과의 교류 공간인 해항도시의 문화교류에서 전유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를 제안하였다.

#### 제5회 콜로키움

HK 해항도시의 문화교섭학 연구단은 2009년 9월 23일(수요일) 3시 한국해양대학교 종합관 세미나실(214호)에서 제 5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5회 콜로키움에서는 중국 칭다오 당안관의 양 라이칭 부관장께서 “해항도시 칭다오 연구의 과제와 전망 海港都市 靑島研究的課題與展望”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칭다오가 역사 발전의 수많은 기복을 통해 중국과 외국 문화의 접점이자 충돌의 무대가 되었으며 독특한 도시문화를 형성하게 된 사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식민적/반식민적이며 봉건적/반봉건적인 칭다오의 특징에 주목한 근현대 칭다오 도시사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이어서 발표자는 건국 전과 후로 나누어 분류

한 칭다오의 도시사 연구 사례들과 함께 중국과 외국에 보존되어있는 칭다오시의 역사 사료 현황을 소개하였다.

#### 제6회 콜로키움

HK 해항도시의 문화교섭학 연구단은 2009년 10월 23일(금요일) 3시 한국해양대학교 종합관 세미나실(214호)에서 제 6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6회 콜로키움에서는 고베 대학교 해항도시연구센터의 사사키 마모루 소장께서 “세계화에 따른 중국 사회구조의 변용: 기층 구조 패러다임의 시점에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중국 고유의 구조적 메커니즘과 논리가 현대 중국의 구조 전환에 표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는 이러한 중국 사회의 변화가 사스키아 사센이 지적한 세계화가 불러일으킨 구조 변동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중국 칭다오의 사회변용을 사례로 “기층 구조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 패러다임의 유효성을 논증하고자 시도하였다. 발표자는 이 사례를 통해 중국 사회의 세계화에 의한 구조전환에 대해 심층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 제7회 콜로키움

HK 해항도시의 문화교섭학 연구단은 2009년 11월 12일(목요일) 3시 한국해양대학교 종합관 세미나실(214호)에서 제 7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7회 콜로키움에서는 경북 대학교 사학과 강진아 교수께서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 해항도시와 광동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화상(화교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아시아를 재조명할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조선과 화교 네트워크, 대표적인 화교회사인 동순태(同順泰)와 광동(廣東)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사례를 소개하였다. 발표자는 이어 조선에서의 광동 네트워크가 정치적 네트워크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화교 네트워크를 통한 동아시아 지정학과 해항도시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 3. 특징 및 성과, 문제점

“해항도시의문화교섭학” 기획 콜로키움은 한국사 1회, 서양사 1회, 동양사 3회, 철학 1회, 사회학 1회(국내 발표자 5인, 국외 발표자 2인)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함께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콜로키움 1부는 공통적인 이론적 기초를 얻기 위한 시간으로 기획되었다. 따라서 1부에서는 인문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이론적 토대에 대한 도움을 주기가 더 용이한 철학, 사학, 사회학의 연구자들을 우선 순위로 초빙하여, 이론적 토대와 방향성, 방법론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시도하였다.

콜로키움 1부에서는 철학 연구를 통해 시대적으로 다르게 수용되는 “문화”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문화교섭학”을 명확히 규정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사학, 사회학 연구자들을 통해 사회학, 국사학, 동양사학, 서양사학에서 “문화교섭학”의 장이 될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을 찾아보고, 문화교섭학의 방법론을 고민해 보았다. 한편 국내 연구자와 국외 연구자들의 연구 발표들을 함께 듣고 토의하면서, 국외의 연구 방법과 사례 등을 국내 연구와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비록 1부에서 철학, 사학, 사회학이라는 제한된 분야의 연구자들과 연구 방법, 연구결과 등을 검토하는 시간이었지만, 연구단의 다른 전공의 연구자들이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질문과 논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할 수 있었다. 전공에 따른 개념 정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및, 방법론, 연구 사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각기 다른 분석은 연구 주제에 대해 전공의 단순한 심화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서양학에서는 무심히 간과되기 쉬운 유럽중심주의적 시각이나, 동양학에서 나타나는 지역적이며 폐쇄적인 시각 등에 대한 합의점이 모색되었으며, 동양학과 서양학, 분과학문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 개념이나 방법론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문제점은 “문화교섭학”이란 새로운 분야의 연구에 익숙하지 않은 초청 발표자들의 발표문들이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이거나, 반대로 연구 사례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연구가 집단이 아닌 일반 대중을 수준으로 할 만한 평이한 내용인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발표문의 수준의 차이 때문에 1부 콜로키움의 목표였던 이론적 토대와 방향성, 방법론을 정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2부 콜로키움 기획 단계에서 신중히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 Ⅲ. 국내의 콜로키움 사례 검토-비교와 전망

#### 1. 국내 콜로키움 사례

국내의 많은 인문학 연구소에서는 주기적으로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으나, 단일한 주제 하에 여러 회를 묶어 개최하는 방식의 콜로키움이 개최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동일한 주제로 학술회의를 기획하는 경우, 다양한 발표와 논의를 단기간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학술대회 방식을 비용과 능률면에서 연구소들이 선호하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1~2년으로 끝나는 단기 연구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연구 주제의 논의를 위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규칙적으로 개최되는 기획 콜로키움 방식의 학술회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연구사업의 장단기 유무를 제쳐두고라도, 인문학의 연구 결과가 타 연구에 비해 긴 시간의 축적이 필요한 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주제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고찰과 토론의 장을 규칙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은 연구의 내실 있는 결과를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라고 본다.

국내의 연구소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콜로키움이 잘 기획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학술회의를 규정하는 단어가 국내에서 혼용되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세미나 seminar, 콜로키움 colloquium, 심포지엄 symposium과 같은 단어들이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다양하며 유동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주제로 일정기간 규칙적으로 개최되는 학술 발표인 경우 그 성격의 차이에 상관없이 세미나로 호칭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국내의 인문학 계열 연구소들의 기획 콜로키움 중에서 학제간 연구 및 융복합 연구의 모범이 될 만한 예는 S 학술원 산하 인문과학연구소의 기획 콜로키움이 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6)</sup>

**【기획 콜로키움 : 인문학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페다고지의 모색】**

- 1 : 영문학:한국영문학 연구와 교육학 전환을 위한 모색(강내희)
- 2 : 인문학과 문헌학:시대의 변환과 학문의 과제(이득수)
- 3 : 철학(이정우)
- 4 : 문화이론: 근대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 구성을 위한 시론  
(심광현)
- 5 : 인류학:탈식민 문화와 경계의 인류학(김성례)

**【기획 콜로키움 : 인문학, 그 경계를 넘어서】**

- 1 : 스키너의 정치사상사 방법론과 비판(유종선)
- 2 : 오리엔탈리즘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어서(박홍규)
- 3 : 지역사 연구의 관점과 과제(정승모)
- 4 : 공동연구:전환기 시대 인문학의 과제

**【기획 콜로키움 : 비주류의 인문학】**

- 1 : 일본 인류학계에서의 식민지 담론과 새로운 동향(최길성)
- 2 : 『열하일기』와 고전평론의 가능성(고미숙)
- 3 : 동아시아의 가족구조와 사회구조(미야지마 히로시)
- 4 : 한국, 아일랜드, 인도 민족운동 비교--자치를 중심으로(박지향)
- 5 : 서사철학과 텍스트 탐구--인문학의 비주류성(김용석)
- 6 : 서사시와 멜로드라마--북한문학의 형식적 속성(신형기)
- 7 : Virtual History의 그 개념과 방향(홍가이)

**【기획 콜로키움 : 탈식민주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 1 : 언제부터 탈식민주의였는가?(이경원)
- 2 : 탈식민주의의 역사성의 문제(이석구)
- 3 : 한국 근대문학과 저항의 의미--식민주의 비판의 몇 가지 문제(김재용)

---

6) <http://cms.donga.ac.kr/user/humanites/index.html> 참조

- 4 : 탈식민주의와 여성--스피박을 중심으로(태혜숙)
- 5 : 베네딕트 앤더슨의 민족이론(고부웅)
- 6 : 탈식민주의와 위기의 저항담론(김의락)
- 7 : 성우신화--포스트 식민적 역사 만들기(이광수)

**【기획 콜로키움 : 한·중·일의 사회적 기억과 동아시아】**

- 1 : 민족의 기억, 민족의 상상--얀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김학이)
- 2 : 전후 독일 기억공동체의 방향 모색(김유경)
- 3 : 20세기 초 중국의 황제열과 ‘중화민족’ 만들기(천성림)
- 4 : 일본의 상징천황제와 평화 이데올로기(박진우)
- 5 : 박정희의 기억, ‘우리’의 기억--민족과 민주 그리고 ‘가난’(황병주)
- 6 : 기억의 장으로서의 동아시아--국사에서 동아시아사로(김기봉)
- 7 : 북한의 정초기억--항일 및 주체 신화를 중심으로(전현수)

**【기획 콜로키움 : 문화학 강의】**

- 1 : 문화학과 문화기호학(김영순)
- 2 : 발터 벤야민의 매체이론(윤미애)
- 3 :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와 대중(고원)
- 4 : 라캉의 정신분석학과 영상이미지 시대의 문화(조선령)
- 5 : 지젝의 정신분석학과 영화(이병창)
- 6 : 언어의 수행성과 젠더의 가장무도회(임옥희)
- 7 : 영문학 정전의 (재)형성과 공적 영역의 변화(하수정)
- 8 : 팝 역사(Pop History)시대의 역사학(김현식)
- 9 : 언어와 역사: 개념사란 무엇인가(나인호)

**2. 국외 콜로키움 사례(프랑스를 중심으로)**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기초학문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개

설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학제간 연구는 영미권에 비해 활성화되거나 그 양이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학제간 연구의 관심이 높아진 국내 인문학계의 실정을 생각해 볼 때,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프랑스의 연구기관과 연구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기초학문 분야에서 연구업적과 그 결과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학제간 연구의 성공적인 사례 등은 최근에 학제간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기 시작한 국내의 인문학계에 좀 더 근접한 해답안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고등교육기관과 연구소의 성공적인 결합의 예로는 사회과학고등연구원과 국립과학연구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고등연구원은 대학원 과정만 있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석, 박사 학위과정에 다영역 교육과정과 다른 교육기관과 연계한 공동박사과정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문학의 심화와 다양성의 추구를 위해 많은 교육기관들이 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석, 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과학고등연구원은 연구소와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교육과정과 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sup>7)</sup> 중앙집권적인 프랑스 정책과 행정이 가진 문제를 탈피하고자 프랑스 연구소들도 지역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는데, 국립과학연구소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립과학연구소와 같은 사례는 특성화되어있지 않았던 기초학문 분야와 응용학문 분야의 국가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효과적인 상호협력 연구를 가능하게 만든 사례라 할 것이다. 국립과학연구소의 예를 통해 프랑스 국립연구소의 변화와 발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는 합동연구 *recherche jointe*의 등장으로 대학교 연구소들로부터 인적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연구소는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시기로 연구소의 연구 범위와 수준이 확대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후 80년대는 본격적인 학제간 연구 *tude interdisciplinaire*가 시작되어 연구소와 기업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혼합 연구팀 *unit mixte*가 만들어지면서 협동연구의 성과가 만들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실험실과 연구팀의 보다 유기적이고 능률적인 연구를 위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중앙

---

7) [www.ehess.fr](http://www.ehess.fr) 참조

집권적인 조직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과의 연계성을 통해 지역적 역동성과 발맞추려 애 쓰고 있다. 따라서 각 분야의 국가정책형성을 목표로 변화에 대한 전망과 국내외 학술현상의 파악과 분석을 위해 인문학 연구의 육성에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국립과학연구소는 정부가 기금을 마련, 학자들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개발된 학술과제에 참석하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희소학문의 보호와 후속세대 양성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sup>8)</sup>

프랑스의 예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인문학이 고립된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영역의 학문과의 소통을 통해서 오히려 연구의 질적인 심화나 후속 세대 양성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단체와 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와 효율적인 연구 분담이라는 사전 작업이 없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성과라고 본다.

이와 같은 학제간 연구 사업의 일부로 국내와 마찬가지로 각종 학술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소에서 다양한 학제간 콜로키움이 기획되어 개최되고 있으나, 해양학과 인문학의 학제간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해양인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콜로키움은 그 수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캉 대학의 인문과학 연구소 Maison de la Recherche en Sciences Humaines de Caen에서 역사, 지리, 고고학, 인류학, 언어학, 법학, 경제학 등으로 해양을 연구하는 학제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콜로키움, 세미나의 기획 프로그램은 드물게 모범적인 일례가 될 것이다. 최근에 개최된 대표적인 학제간 해양인문학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콜로키움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9)</sup>

선박 제조 - 고고학과 건축학적 관점에서(2004년)

사회적 공간으로의 선박 - 갤리선에서 핵 잠수함까지(2005년)

선박의 모든 것 : 고고학적, 언어학적, 법학적, 경제적 접근을 통하여 (2005년)

---

8) [www.cnrs.fr](http://www.cnrs.fr) 참조

9) <http://www.unicaen.fr/recherche/mrsh/> 참조

## IV. 결론

콜로키움은 그 어원을 라틴어에서 찾고 있는데, 원래 “함께 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이 본래의 의미는 콜로키움이 시초부터 학문의 영역을 제한하거나 편협한 시각을 지양하는 모임이었다는 사실을 유추하게 해준다.

국내 인문학계는 서양이 겪고 있는 본질론적인 인문학의 위기의 여파에 더해 불안정한 경제적, 제도적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인문학은 다른 학문과의 연계와 소통을 통해 인문학이 근본적으로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하려고 꿈꾸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생각할 때, 바로 학제간 연구의 방법과 과정을 보여주는 콜로키움은 인문학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지름길 중 하나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미 서론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문학 분야에서 해양은 낯선 미지의 영역으로 머물고 있다. 인문학에서 해양은 상징으로 관념화, 이상화 되어 그 실제적인 잠재력과 풍요성을 아직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륙은 문명화된 공간이며, 해양은 비문명화된 공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역시 인문학에서 해양의 위치를 축소하고 해양이라는 공간이 가진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해양을 통해 인류의 꿈과 무의식을 조망하는 인문학이 해양의 현실적인 변화와 물질적인 다양성에 주목하는 비인문학과 만난다면 종래의 인문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해양인문학이 탄생될 것이라 기대된다. 그리고 이 탄생은 인문학이 처한 위기를 인문학의 본질을 되살리는 새로운 부활로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백원담 편역, 『인문학의 위기』, 푸른숲, 1999.
- 신동기, 『희망 인문학에게 묻다』, 엘도라도, 2009.
- 커트 스펀라이어 저/정연희 역, 『인문학의 즐거움, 휴먼앤북스』, 2008.
- 이선관, “인문학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인문과학연구 江原人文論叢 第18輯,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12,
- 이성훈, “인문학의 위기와 문화연구”, 인문학논총 인문과학논총 제7집,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2,
- 전국대학인문학연구소협의회, 『현대사회 인문학의 위기와 전망』, 민속원, 1998
- 마크 C. 헨리 저/강유원 역, 『인문학 스터디』, 라티오, 2008.
- Julie Thompson Klein, *Humanities, Culture, And Interdisciplinarity: The Changing American Academ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5.
- Lisa Lattuca, *Creating Interdisciplinarity :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Teaching among College and University Faculty*, Vanderbilt University Press, 2001.
- Allen F. Repko, *Interdisciplinary Research : Process and Theory*, Sage Publications, Inc, 2008.
- <http://cms.donga.ac.kr/user/humanites/index.html>
- [www.cnrs.fr](http://www.cnrs.fr)
- [www.ehess.fr](http://www.ehess.fr)
- [www.ima.ac.kr](http://www.ima.ac.kr)
- <http://www.unicaen.fr/recherche/mrsh/>

# L'avenir des études maritimes en sciences humaines travers les colloquiums “ études des interactions culturelles de ports maritimes (Cultural Interaction Studies of Sea Port Cities)”

Lee Song Yi

Le problème de la crise en sciences humaines se pose dans le monde universitaire et les milieux académiques coréens depuis 1995. Pourtant, toutes les réflexions et les propositions des intellectuels concernant cette crise ne semblent pas bien aider à régler ce problème plutôt fondamental.

Une fois de plus, au 19<sup>me</sup> siècle en Europe, la crise des sciences humaines réapparaît à l'époque du postcapitalisme et du postmodernisme. Alors,

l'époque où l'on admet qu'il n'est pas de “pensée unique”, la mutation en profondeur des idées et des postures intellectuelles demande inévitablement d'autres transformations sur le plan de l'enseignement et des recherches.

L'approche interdisciplinaire—aussi bien dans les recherches que dans l'enseignement universitaire—pourrait être l'un des moyens pour explorer ces nouvelles sciences humaines, transformées, renouvelées.

L'institut des affaires maritimes internationales organise quelques séries de colloquiums “ études des interactions culturelles des ports maritimes, un des programmes interdisciplinaires. La 1<sup>re</sup> série propose la collaboration entre les diverses disciplines et l'ouverture entre champs de savoir. Ce nouvel essai académique permet aux chercheurs de franchir les frontières disciplinaires organisées. Alors, ce support, ce complément ou cette façon de remplacer la recherche basée sur les disciplines, permet finalement de développer une vision



interdisciplinaire, complète et riche vers les études maritimes.

주제어(Key Words)

콜로키움 인문학 학제간 연구 해양인문학 해항도시의문화교섭학

colloquium humanities, sciences humaines, interdisciplinary research, étude  
interdisciplinaire marine humanities, études maritimes en sciences humaines  
cultural interaction studies of sea port cities, études des interactions  
culturelles de ports maritimes



